

# ‘부품왕국’ 일본이 안부럽다

## 카본베어링실 생산업체 ‘모간’ 日서 주문 쇄도

대구 달성공단에서 산업용 부품 ‘카본베어링실’을 만드는 모간(대표 박성훈)은 부품왕국 일본이 부럽지 않다.

일본 기업들조차 일본산 부품을 제치고 모간의 카본베어링실을 구매할 만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본베어링실이란 베어링 같은 회전체 가장자리에 부착해 회전물체의 운동력을 높이고 기계 내 액체가 회전체 안팎으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거의 모든 기계설비에 필수적인 장치다.

특히 유해약품과 2000도가 넘는 고온의 액체 등 악조건에서 작동해야 하는 기계장치에서 모간 제품은 진가를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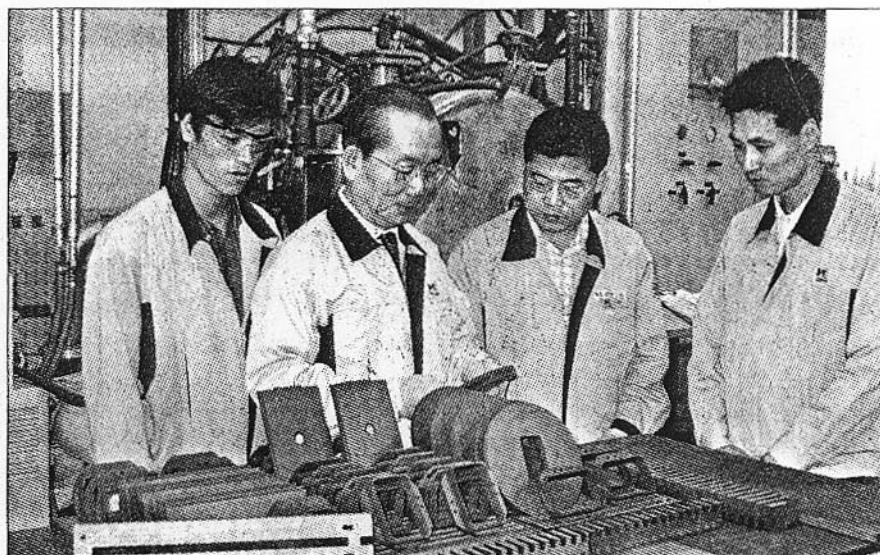
P사 L사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석유화학, 로(爐) 취급 회사에 제품을 독점공급하는 것은 물론 이 분야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조차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제품은 소음을 줄이는 데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보일러 제조업체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 얘기다.

이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일류 기술력 덕택이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본베어링실 제조기술은 국내기업 중에서는 따라올 기업이 없고 해외에서도 선진국 몇 개 업체에 불과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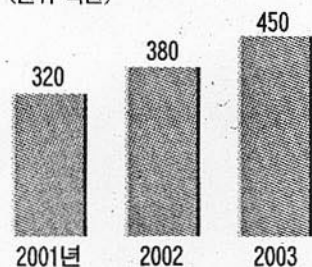
최근 국내 일부업체와 중국 등에서 흉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카본분말 혼합·성형 과정에서 이 회사만의 수십 년 간 노하우를 따라잡지 못해 쉽게 부스러지고 내약품·내열성도 현격히 떨어져 카본 원료값도 못 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카본계열 제품은 기계에 부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운반과정에서 검은 빛깔이 묻어나는



박성훈 모간 사장(왼쪽 둘째)이 직원들과 함께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모간 매출액 현황  
(단위=억원)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제품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힌 글라시코팅 제품도 출시해 기존 제품의 단점을 줄여나가는 데 골몰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조직을 3개 사업부로 나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것도 나름대로 성공요인. 모간 안에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부 직원들과 그렇지 못한 사업부간 많게는 3배까지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 결과, 회사는 국내 제조업경기의 전반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모간의 매출실적은 2001년 320억원, 2002년 380억원, 지난해 450억원. 해마다 10% 이상의 매출증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요즘 모간은 차세대 주력품목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카본베어링실과 함께 현재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는 모터용 카본브러시, 탄소온열기 등 모두 20여 종. 이들 대부분 분야에서 국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투자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런 판단에서 요즘 한창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분야는 비행기 제동시스템과 연료전지다. 이 회사는 고품질의 항공기 제동장치 만들기에 성공한 데 이어 고순도 탄소심도 이미 개발을 끝낸 상태다.

박성훈 사장은 “제조업 기피현상이 만연하고 기업환경이 열악하지만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한우물 파기로 세계적 기술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배한철기자